

소감

교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걸 저희는 단순히 듣는 방식을 떠나서 저희가 배울 내용을 스스로 찾아내는 방식이라 더욱 특별했습니다. 스스로 찾는 방식이여서 더욱 기억에 남고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비록 이게 과연 정답이 맞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었지만, 만약 틀렸다고 해도 왜 틀렸는지 의논한다면 더 의미있는 공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다시 한 번 조원들과 과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즐거웠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. 서로간의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. 완벽하진 않더라도 이 과정들이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.